

언젠가 프로야구 2군 선수들의 노력과 애환을 담은 광고가 TV를 통해 소개된 적이 있다. 야구팬이라면 한번쯤 기억될 이 광고는 야구를 업으로 하는 필자에게 몇 년이 지난 지금에도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최근 프로야구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관련 이미지들이 다양한 미디어에서 자주 노출되곤 한다. 하지만 1군 선수들에 비해 2군 선수들은 노출조차 되지 않는 것이 안타까웠던 필자는 TV 광고에서나마 2군 선수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 반가웠던 것 같다.

프로야구 2군. 2010년부터 2군 리그의 활성화를 위해 퓨처스리그로 리그명을 변경한 프로야구 2군은 1군 입성을 위한 유망주를 주축으로 운영되는 리그이다. 올해 퓨처스 리그는 1군 진입을 위해 마지막 담금질을 하고 있는 제9구단 NC 다이노스가 참가하며, 비록 번외 경기지만 독립리그 팀인 고양 원더스, 일본 프로야구 소프트뱅크 3군까지 가세해 예전보다 규모나 관심도가 높아졌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리그 자체의 성격은 프로야구 1군을 지원해주는 성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프로야구 2군, 퓨처스 리그

양 해 영
한국야구위원회 사무총장



또한, 열악한 인프라와 낮은 연봉으로 인해 어떤 선수들에게는 하루에도 몇 번씩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한다는 점도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깊이 숙지하고 있는 KBO와 각 구단들은 퓨처스리그 선수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러 여건상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 프로야구에 몸 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프로야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중, 고교부터 치열한 경쟁을 통해 주전으로 살아남아야 하며 졸업 후 프로구단에 입단하기 위해서는 지명을 받아야 한다. 또한, 지명을 받는다 하더라도 재능이 뛰어난 몇몇 선수를 제외하고는 1군과 퓨처스 리그를 들락거리며 몇 년간 세월을 허비하기도 한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1군 주전경쟁도 치열한데 퓨처스리그에서 과연 계속 야구를 이어가는 것이 옳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겠다. 피나는 노력을 한다고 해도 보장되지 않는 1군 입성을 기다리느니 차라리 하루라도 빨리 다른 일을 하라고 충고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 주위를 둘러보자. 아니, 우리 모습을 돌이켜 보자. 학창시절부터 경쟁을 통해 대학에 진학하고 졸업 후 직장에 들어가 하루하루 정신 없는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이마의 주름이 선명해질수록, 허리 둘째가 늘어날수록 학창시절 꿈꿔왔던 목표, 무엇인가에 깊게 빠져들게 했던 열정이 희미해지진 않았는지.

최소한 퓨처스리그에 속한 선수들에게는 한가지 뚜렷한 목표가 있다. 자신이 속한 구단에서 자신만의 응원가를 들으며 주전으로 그라운드를 뛰어보는 것. 단순하지만 뚜렷한 이 목표를 향해 오늘도 관중 없는 텅 빈 그라운드에서 그들은 배트를 휘두르고 공을 던지고 있다. 어쩌면 이 선수들이야말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진정 원하는 것을 찾아 가는 참된 인생을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퓨처스리그를 단순 직역하자면 미래 리그라고 할 수 있겠다. 우스꽝스러운 직역이지만 미래라는 단어를 깊게 들여다 보면 그 속에는 희망이란 메시지를 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불투명하고 두려운 미래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지탱해주는 것이 희망이기에 그들은 오늘도 굵은 땀방울을 쏟으며 희망을 꿈꾼다.

선수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KBO와 구단의 일이라면 힘없이 구르는 유격수 땅볼이라도 1루를 향해 전력질주 하는 그들에게 힘찬 박수를 보내는 일은 바로 프로를 지향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닐까. KEA